

# 睡眠이 四象體質 病證管理指標로써의 역할에 대한 考察

김명균·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 Abstract

A study of constitutional disease with sleep as constitutional symptom.

Kim Myung-Gune·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 1. Objectives

In ShinChukbon 『DongyiSuseBowon』, there are many contents of constitutional diseases and symptom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recognition of sleep as Dong-Mu's constitutional symptoms.

### 2. Methods

In ShinChukbon 『DongyiSuseBowon』, I found contents about sleeping and made comparative study of acquired contents. And I made comparative of previous studies.

### 3. Results

(1) I concluded that Soumin who has interior and exterior diseases didn't get sleep well. Under the condition that constitutional diseases are cured, Soyangin gets to sleep well.

(2) I concluded that Soyangin who has interior and exterior diseases sleep lesser than ordinary symptoms. Under the condition that constitutional diseases are cured, Soyangin gets to sleep well.

(3) I concluded that Taeumin who has interior diseases sleep lesser than ordinary symptoms. Under the condition that constitutional diseases are cured, Taeumin gets to sleep well.

(4) I concluded that Taeang who has constitutional disease may sleep lesser than ordinary symptoms. But not confirmed.

### 4. Conclusions

There is some ground that sleep as constitutional symptom would be a good authority of checking constitutional disease.

**Key Words:** Constitutional symptom, Sleep, Constitutional disease.

## I. 緒 論

東武 李濟馬는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구분하고 각 체질의

생리와 병리 그리고 치료 및 양생법을 연구하여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였다. 이후 四象醫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體質證과 體質病證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왔다. 『東醫壽世保元』의 각 篇名의 이름을 중심으로 病證을 비교<sup>1)</sup>하거나 『東醫壽世保元』 외에 다른 韓醫學 原典과의

접수일 2004년 7월 9일; 승인일 2004년 8월 4일

교신저자 : 박성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ac.kr](mailto:parkss@dongguk.ac.kr)

1)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사상체질의학회지. 1994;6(1):81-7

비교 연구가 있어왔고 최근에는 「甲午本」과 「辛丑本」의 비교를 통해 각 체질의 병증을 이해하려는 연구<sup>2)</sup>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四象體質 病證管理指標를 통하여 病證論을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많이 행하여져 왔다. 四象體質 病證管理指標란 四象人에서의 恒心과 完實無病의 조건을 통하여 四象人의 전체적인 병리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한 것인데, 송<sup>3)</sup>은 病證管理指標로써 睡眠障礙, 情緒障礙, 大便障礙, 小便障礙, 消化障礙, 汗의 6항목을 제시하여 연구하였으며, 최 등<sup>4)</sup>은 大便, 小便, 睡眠, 情緒, 消化, 汗出, 舌苔의 異常有無 및 嚥下困難을 病證管理指標로 제시하여 연구한바 있다. 病證管理指標를 통한 病證論에 대한 연구는, 四象醫學이 心身均衡을 추구하는 의학으로 ‘體質的 治心正氣’를 바탕으로 하는 ‘治心治病’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며 四象醫學의 體質病證藥理는 선천적 장기의 대소에 따른 氣의 편재와 性情失調에 의해 발생한 病證의 上下의 偏在 현상을 調和와 調節의 차원에서 表裏氣의 升降緩束으로 조절하여 궁극적으로 體質的 正氣를 확보하는 病證管理<sup>5)</sup>임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四象醫學的 病證管理指標중에서 汗<sup>6)</sup>, 小便<sup>7)</sup>, 大便<sup>8)</sup>, 消化<sup>9)</sup>, 性情<sup>10)</sup> 등에 대하여 문헌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으며, 특히 汗, 小便, 大便, 消化는 四象人의 完實無病과 관련된 부분으로 더욱 연구가 많이 되어 왔다. 그러나 四象人에 있어서 病證인식이 단순히

그 체질에는 어떤 病證管理指標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체적 의미에서 病證管理指標가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다른 四象醫學的 病證管理指標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汗, 小便, 大便, 消化 이외에 四象醫學的 病證管理指標로써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睡眠에 관한 것이다. 박 등<sup>11)</sup>은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睡眠에 관한 조문을 찾고 이전의 문헌들과 비교하였으며, 최 등<sup>12)</sup>은 睡眠에 대해 임상적 연구를 행한바 있다. 그러나 睡眠이 『東醫壽世保元』의 전편에서 다른 病證管理指標와 함께 병증의 관리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四象人의 病證과 연계하여 어떻게 응용될 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四象醫學的 病證管理指標 중에서 睡眠에 대해서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나타난 조문을 검토하여 體質病理를 고찰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발표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1. 본 연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나타난 四象人의 病證論중에서 睡眠에 관한 조문을 확인하여 각 체질별로 나타날 수 있는 睡眠의 양상과 病理的 상황에서의 睡眠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이면에 나타난 四象人의 病證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2. 『東醫壽世保元』의 1901년 초판본을 四象醫學會에서 영인한 판본을 「辛丑本」이라 칭하고 사용하였다.

3. 비교를 위해 朴性植이 譯解한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을 「草本卷」이라 칭하고 사용하였다.

4. 비교를 위해 사용한 「甲午本」은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통해서 復元한 甲午年의 『東醫壽世保元』을 「甲午本」이라 칭하고 사용하였다.

- 2)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病證論에 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34-50.
- 3) 송일병. 四象醫學의 中風管理의 臨床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2):117-130.
- 4) 최재영, 박성식. 四象醫學의 中風治驗 157例에 대한 臨床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431-53.
- 5) 송일병. 四象醫學의 中風管理의 臨床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2):117
- 6) 하만수. 汗을 중심으로 한 體質 病證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125-31.
- 7) 김명균, 박성식. 汗과 小便을 중심으로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과 少陽人 胃受熱 裏熱病의 病理에 대한 비교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37-43.
- 8) 이정찬, 김달래. 大便을 중심으로 한 사상 체질 병증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2;4(1):171-177.
- 9) 김관준, 임화재, 김종원. 四象體質에 따른 食餌습관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59-74.
- 10) 조황성. 性情과 表裏證과의 關係.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49-51.

11) 박성진, 김달래. 四象醫學에서의 睡眠障礙에 관한 文獻的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1):127-34.

12) 최정락,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睡眠의 특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204-15.

### Ⅲ. 本論

#### 1. 少陰人 病證論에 나타난 睡眠의 양상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에 “一人 傷寒 發狂欲走 脈虛數 用柴胡湯 反劇 以參·芪·歸·朮·陳皮·甘草煎湯 一服 狂定 再服 安睡而愈”<sup>13)</sup>에서 少陰人의 表熱證에서 熱이 심해지는 경우에 제반 증상과 함께 狂症의 양상이 나타나다가 치료가 되면서 睡眠을 잘하게 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少陰人의 表熱病에서 熱이 심해질수록 不眠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며, 睡眠이 호전됨과 동시에 表熱病도 호전되는 것으로 睡眠을 表熱病 호전의 근거로 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胃受寒裏寒病論」에서 “腹脹滿 面萎黃 躁不得睡”라 하여 少陰人의 黃疸證에서도 黃疸과 躁症 및 不眠의 양상이 나타내는데, 이것은 少陰人에서 黃疸證과 不眠이 같은 病證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少陰人에서 睡眠이 개선될 때 黃疸證의 개선도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睡眠의 개선이 病證의 개선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胃受寒裏寒病論」 “...三陰病深 必變爲陰毒 其證 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蹠而臥...此證 面青 四肢厥冷 多睡”<sup>14)</sup>, “張仲景曰 傷寒直中陰經...怕寒 蹠臥 沈重欲眠 脣青厥冷...”<sup>15)</sup>, “...又 少陰人 小兒 一人 下利清水 面色青 氣陷如睡...”<sup>16)</sup>에서 少陰人의 太陰病 病態에서 泄瀉, 四肢厥冷 등의 증상과 嗜眠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 “少陰病 脈微細 但欲寐”, “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

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 小便色白 宜四逆湯”, “論曰 少陰人 喜好不定而 計窮力屈則 心煩躁也 少陰病 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此 非計窮力屈者之病乎.”<sup>17)</sup>에서 少陰人의 少陰病 양태에서도 泄瀉 등의 증상과 함께 嗜眠 증상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少陰人의 裏寒病에서 泄瀉, 四肢厥冷 등의 증상 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睡眠의 이상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少陰人의 裏寒病에서 睡眠이 같은 병태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少陰人의 裏寒病에서 睡眠이 정상화 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裏寒病이 호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睡眠이 裏寒病에서 大便상태의 호전과 더불어 병증 호전의 준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少陰人에 있어서 병이 없는 경우에 睡眠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으며, 表熱病이나 裏寒病의 병태에서 睡眠의 이상이 나타나서 嗜眠이나 不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睡眠 증상의 개선과 더불어 병증의 개선도 나타나므로 睡眠의 개선으로 病證의 호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少陽人 病證論에 나타난 睡眠의 양상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脾受寒表寒病論」에서 “... 未境 病人 腹中大脹 角弓反張之證 出焉 角弓反張後 少頃得汗而 睡. 翌日平明 病人 又服白虎湯一貼 日出後 滑便一次而 病快愈...”<sup>18)</sup>의

13)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王好古 海藏書曰 一人 傷寒 發狂欲走 脈虛數 用柴胡湯 反劇 以參·芪·歸·朮·陳皮·甘草煎湯 一服 狂定 再服 安睡而愈.”

14)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李梴曰 三陰病深 必變爲陰毒 其證 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蹠而臥 甚則 咽痛鄭聲 加以頭痛 頭汗 眼睛內痛 不欲見光 面脣指甲青黑 身如被杖 又 此證 面青 四肢厥冷 多睡”

15)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張仲景曰 傷寒直中陰經 初來 無頭痛 無身熱 無渴 怕寒蹠臥 沈重欲眠 脣青厥冷 脈微而欲絕 或伏 宜四逆湯 四逆者 四肢逆冷也”

16)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又 少陰人 小兒 一人 下利清水 面色青 氣陷如睡 用 獨參湯 加生薑二錢 陳皮 砂仁 各一錢 日三四服 數日後 下利十餘行 大汗解”

17)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論曰 少陰人 喜好不定而 計窮力屈則 心煩躁也. 少陰病 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此 非計窮力屈者之病乎. 蓋 喜好者 所慾也. 何故 至於計窮力屈而 得此少陰病乎 何不早用君子寬平心乎. 然 初證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早用藥則 猶可免死也. 其病 至於躁無暫定而厥則 勢在極危也 其不可憐乎. 此證 當用 參黃湯 四逆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18)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嘗治 少陽人 傷寒 發狂譫語證 時則 乙亥年 清明節候也. 少陽人 一人 得傷寒 寒多熱少之病 四五日後 午未辰刻 喘促短氣 伊時 經驗未熟 但知少陽人應用藥 六味湯 最好之理故 不敢用他藥而 祇用六味湯一貼 病人喘促 即時頓定. 又數日後 病人 發狂譫語 喘促 又發. 又用六味湯一貼則 喘促雖少定而 不如前日之頓定矣. 病人 發狂連三日 午後喘促又發 又用六味湯 喘促 略不少定 有頃 舌卷動風 口噤不語. 於是而 始知 六味湯之無能爲也. 急煎白虎湯一貼 以竹管 吹入病人鼻中 下咽而 察其動靜則 舌卷口噤之證 不解而 病人 腹中微鳴. 仍以兩爐煎藥 荳蔻灌鼻 數三貼後 病人 腹中大鳴 放氣出焉. 三人 扶持病人 竹管吹鼻灌藥而 病人 氣力益屈 強 三人扶持之力 幾不能支當矣. 又 荳蔻灌鼻 自未申時 至亥子時 用石膏 八兩. 未境 病人 腹中大脹 角弓反張之證 出焉 角弓反張後 少頃得汗而 睡. 翌日平明 病人 又服白虎湯一貼 日出後 滑便一次而 病快愈. 愈

치험례를 통하여 表寒病 말기에 熱을 끼게 되어 發狂과 不眠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증상이 호전되면서 大便이 소통되고 睡眠을 취하게 되면서 증상이 호전됨을 제시하여, 大便이 풀리는 것 뿐 아니라 睡眠을 잘 하게 되는 것이 병이 풀리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脾受寒表寒病論」의 荊防地黃湯 치험례에서 “...其夜 泄瀉度數 減半 其翌日用 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 能通小便...”<sup>19)</sup>라 하여 亡陰病에서 荊防地黃湯을 사용하여 설사의 횟수가 줄게 됨과 小便이 잘 통해 지는 것 이외에 편안히 睡眠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少陽人의 亡陰病에서도 설사의 횟수의 감소만 만 아니라 소변이 잘 통하고 睡眠이 안정됨으로써 病證이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睡眠이 병의 호전에 있어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胃受熱裏熱病論」에서는 “...其脈 雖伏 按之滑者 爲裏熱 或飲水 或揚手擲足 煩躁 不得眠 大便秘 小便赤 外證 多昏憤...”<sup>20)</sup>라 하여 少陽人의 裏熱病에서 大便이 통하지

않고 소변이 붉어지는 증상뿐 만 아니라 답답해하면서 睡眠을 잘 이루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즉 少陽人의 裏熱病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不眠이 나타남을 의미하며 裏熱病이 호전될 때 大便과 小便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睡眠이 양호해 지는 것을 하나의 호전 증상으로 인지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결국 少陽人에 있어서 表裏病證을 막론하고 병이 심해질수록 大小便의 불량과 더불어 不眠이 나타날 수 있고 증세가 호전되면 大小便 상태의 개선과 더불어 睡眠 상태가 호전됨을 알 수 있다. 즉, 睡眠을 잘하게 되는 것을 病證 호전의 준거로 볼 수 있다. 또한 草本卷에서 “能食安寢少陽之吉祥”<sup>21)</sup>이라 하여 少陽人에 있어서는 수면을 잘하게 되는 것이 병이 호전되는 증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결국 少陽人에 있어서 表病, 裏病의 구분 없이 병이 심한 경우 不眠의 양상이 나타나고 병이 호전되거나 몸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睡眠을 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太陰人 病證論에 나타난 睡眠의 양상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 “熱在表則 目疼 不眠 宜解肌湯 熱入裏則 狂譫 宜調胃承氣湯.”<sup>22)</sup>, “陽明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葛根解肌湯”이라 하여 病證과 관련된 睡眠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즉 太陰人의 裏熱病에 있어서 초기에 熱이 있으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제반 증상 이외에 不眠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熱이 심해질수록 狂譫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太陰人이 裏熱病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熱로 인하여 睡眠이 障碍를 받게 되며 裏熱病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不眠의 상태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裏熱病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不眠의 상태가 되고 호전될수록 睡眠 상태가 양호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상에서도 太陰病 裏熱病 환자에서 不眠의 상태가 개선됨을 裏熱病이 호전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것으로 생

後 有眼病 用石膏 黃柏末 各一錢 日再服 七八日後 眼病 亦愈 伊時 未知大便驗法故 不察大便之秘閉幾日 然 想必此病人 先自表寒病 得病後 有大便秘閉而 發此證矣.”

19)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其後又有少陽人 十七歲 女兒 素證 間有悖氣 食滯腹痛矣 忽一日 頭痛 寒熱 食滯 有醫 用蘇合元三箇 薑湯調下 仍爲泄瀉 日數十行 十餘日不止 引飲不眠 間有譫語證 時則 乙亥年 冬十一月 二十三日也 卽夜 用生地黃 石膏 各六兩 知母三兩 其夜 泄瀉度數 減半 其翌日用 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 能通小便 荊防地黃湯 藥力 十倍於 知母白虎湯 可知矣 於是 每日用此藥 四貼 晝 二貼連服 夜 二貼連服 數日用之 泄瀉 永止 頭部兩鬢 有汗而 病兒 譫語證 變爲發狂證 病家 驚惑 二晝夜 疑不用藥 病勢遂危 頭汗不出 小便秘結 口嚼冰片 不省人事 爻象 可惡矣 勢無奈何 以不得已之計 一夜間 用荊防地黃湯 加石膏一兩 連十貼 灌口 其夜 小便通三碗 狂證不止 然 知人看面 稍有知覺 其翌日 又用六貼 連五日 用四五六貼 發狂始止 夜間或 霎時就睡 然不能久睡 便覺 又 日用三四貼 連五日 頭頂兩鬢 有汗而 能半時刻就睡 稍進粥飲少許 其後 每日 荊防地黃湯 加石膏一錢 日二貼用之 大便 過一日 則 加四錢 至于十二月 二十三日 始得免危 能起立房室中 一湖內 凡用石膏 四十五兩 新年 正月 十五日 能行步一里地而 來見我 其後 又連用 荊防地黃湯 加石膏一錢 至于新年 三月”

20)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朱肱曰 陽厥者 初得病 必身熱頭痛 外有陽證 至四五日 方發厥 厥至半日 却身熱 蓋 熱氣深 方能發厥 若 微厥 却發熱者 熱甚故也 其脈 雖伏 按之滑者 爲裏熱 或飲水 或揚手擲足 煩躁 不得眠 大便秘 小便赤 外證 多昏憤 用白虎湯.”

21)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眼明 手捷 少陰之吉祥 能食安寢 少陽之吉祥 肉肥汗多 太陰之吉祥 肉瘦溺數 太陽之吉祥”

22)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李梴曰 微惡寒 發熱 宜葛根解肌湯 目疼 鼻乾 潮汗 閉澀 滿渴 狂譫 宜調胃承氣湯 熱在表則 目疼 不眠 宜解肌湯 熱入裏則 狂譫 宜調胃承氣湯.”

각된다. 결국 太陰人에서 裏熱病의 경우 大便이 풀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睡眠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도 裏熱病의 호전 상황을 알 수 있다.

#### 4. 太陽人 病證論에 나타난 睡眠의 양상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太陽人 病證論에서는 病證에 따른 太陽人의 睡眠 상태의 변화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또한 太陽人 病證論은 「太陽人 外感腰脊病論」과 「太陽人 內觸小腸病論」으로 구성되어 表裏寒熱의 구분도 있지 않아서 기존 한의학적 관점으로 추론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에서 “肝魂淫則恍惚作也”<sup>23)</sup>에서 太陽人의 恍惚의 병증을 제시하여 太陽人에서도 病이 심해지는 경우에 小便이不利해지는 병증 이외에 睡眠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병증의 변화와 더불어 수면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 “太陽少陽 寢眠呼吸緩端寬臥靜重則吉 太陰少陰 寢眠呼吸洪壯轉輒有力則吉”의 조문에 의하여 睡眠 중의 양상에 대해서도 약간의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結論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四象人의 睡眠과 관련한 病證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少陰人은 表裏病證에서 병증이 심해지는 경우 대변장애 등의 증상과 더불어 嗜眠이나 不眠 등의 睡眠이상이나 나타난다. 또한 병증의 호전과 더불어 睡眠 상태의 호전을 보이게 된다. 결국 少陰人에서 病의 호전상태를 大便, 消化 외에 睡眠상태의 개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少陽人은 表裏病證을 막론하고 병이 심해지면 제반 증상외에 睡眠도 취하기 어려우며 병이 호전됨과 같이 睡眠상태도 호전된다. 결국 少陽人에서 病의 호전상태를 大便이나 小便이외에 睡眠상태의 개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太陰人은 裏熱病에서 병이 심해지면 제반 증

상 이외에 睡眠도 취하기 어려워지며 裏熱病이 심해질수록 더욱 수면을 취하기 어렵다. 반면에 裏熱病이 호전됨과 함께 睡眠의 상태도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 睡眠상태의 개선이 裏熱病의 호전 상황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太陽人의 병증 변화에 따라 睡眠 상태의 변화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의 내용에서 太陽人에서도 病이 심해지는 경우에 睡眠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睡眠중에 나타나는 양상은 확인할 수 있다.

睡眠은 汗, 小便, 大便, 消化와 더불어 四象醫學에서 중요한 病證의 인식지표로 생각되어 왔으며, 睡眠에 대한 연구도 기존에 있었다. 박 등<sup>24)</sup>은 太陰人의 裏熱病에서 不眠양상이 나타나고 少陰人에서 裏寒病에서 多面的 양상과 少陰人 表熱病에서 不眠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본 논문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다만 박 등<sup>25)</sup>은 少陽人과 太陽人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논문에서는 少陽人에서도 不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등<sup>26)</sup>과 김 등<sup>27)</sup>은 睡眠의 양상을 草本卷에 근거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과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최 등<sup>28)</sup>은 외래환자 610명을 대상으로 한 수면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논문에서 少陰人이 다소 꿈이 많으며 太陰人이 다소 잠을 적게 잔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차후 병증과 소증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의 문헌적 연구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 등<sup>29)</sup>은 中風환자를 四象醫學의 病證管理指標로 살펴본 논문에서, 中風환자들에게 있어 舌苔異常이 가장 많고 다음이 睡眠 그리고 다음이 大便障礙인 것으로 발표하여 睡眠이 大便障礙등과 같이 중요

24) 박성진, 김달래. 四象醫學에서의 睡眠障礙에 關한 文獻的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1):127-134.

25) 박성진, 김달래. 四象醫學에서의 睡眠障礙에 關한 文獻的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1):127-134.

26) 이태규 외 7인. 健康概念의 四象醫學的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88-99.

27) 김선민, 송일병.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武遺稿』에서의 素證에 關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67-77.

28) 최정락,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睡眠의 특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204-215.

29) 최재영, 박성식. 四象醫學的 中風治驗 157例에 대한 臨床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431-453.

23)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肺意阻則怔忡作也, 脾魂蕩則悅亂作也, 肝魂淫則恍惚作也, 腎志促則健忘作也.”

한 病證管理의 지표가 되며 睡眠의 호전이 병의 호전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V. 參考文獻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서울, 1998.
2. 朴性植 譯解. 李濟馬 原著.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서울, 2001.
4.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사상체질의학회지. 1994;6(1):81-87
5. 송일병. 四象醫學의 中風管理의 臨床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2):117-130.
6. 이정찬, 김달래. 大便을 중심으로 한 사상 체질 병증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2;4(1):171-177.
7. 하만수. 汗을 중심으로 한 體質 病證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125-131.
8. 김명균, 박성식. 汗과 小便을 중심으로 太陰人 肝受熱裏熱病과 少陽人 胃受熱裏熱病의 病理에 대한 비교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37-43.
9. 김관준, 임화재, 김종원. 四象體質에 따른 食餌 습관에 關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59-74.
10. 조황성. 性情과 表裏證과의 關係.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49-51.
11.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病證論에 關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34-50.
12. 최정락,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睡眠의 특징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204-15.
13. 이태규 외 7인. 健康概念의 四象醫學的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88-99.
14. 김선민, 송일병.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과 『東武遺稿』 에서의 素證에 關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67-77.
15. 박성진, 김달래. 四象醫學에서의 睡眠障礙에 關한 文獻的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1):127-134.
16. 최재영, 박성식. 四象醫學的 中風治驗 157例에 대한 臨床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431-453.